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M&A 성공의 필수조건“ 자율 ”

석유화학기업들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기 위해 또는 경쟁기업과의 통폐합을 시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할까?

최대의 흑자기업인 호남석유화학과 매출액 최대인 LG화학을 주축으로 M&A를 추진하고 있고, 최대의 정유기업인 SK가 석유화학사업 합리화를 내걸고 통폐합에 적극적인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 석유화학의 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석유화학협회를 주축으로 기획위원회를 열고 사장단회의까지 열어 자율적인 통폐합을 시도한다고 부산을 떨어댄 지 한참이 지났으나「함흥차사」격이 돼버렸다.

왜 그러할까? M&A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산업자원부의 주도 아래 들러리를 서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염불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신경을 쓰는」땡중의 못된 근성을 버리지 못한 때문인가?

최근 화학산업계에 회자되고 있는「휴비스의 성공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불황업종이고 사양산업으로 만성적인 공급과잉에 시달려온 화학섬유산업에서 휴비스가 출범할 당시만해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흑자전환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관계자는 거의 없었다.

2000년11월 SK케미칼과 삼양사가 화학섬유 부문을 분리해 휴비스를 설립할 당시 휴비스는 Polyester 단섬유 국내1위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으나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됐기 때문에 적자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양사가 적자부문을 떼어내 직접부실을 줄이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휴비스는 출범한 뒤 2000년 11-12월 2달동안 143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은 물론 14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SK케미칼과 삼양사는 화학섬유 부문에서만 매달 40억-6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휴비스는 2001년 매출액 1조원과 흑자 49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고 한다.

휴비스는 출범 당시 부채비율이 200%로 화학섬유기업 평균 부채비율 454%보다 훨씬 양호했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화학섬유기업 평균인 13.2%보다 크게 낮은 3.5%에 그쳤다. 통합하면서 악성부채를 상당부문 감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R&D 및 영업부문 등 중복 설비 및 인력을 감축해 코스트 절감을 이루었으니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단섬유 생산능력 국내1위에 올라 마케팅력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었던 점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휴비스는 현재 총생산의 60% 이상을 단섬유가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휴비스는 국내 공급과잉인 화학섬유 설비를 중국으로 옮겨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직접 섬유사업을 벌임은 물론 고부가가치제품인 스판덱스, 산업용 소재로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석유화학기업들이 SK와 삼양사의「휴비스 통합」에서 배워야 할 것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이고, SK케미칼과 휴비스의 경영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 통합에 합의하고 서명했으며,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의 책임을 맡겼다는 점일 것이다.

즉, M&A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입안·집행했으며, 코스트 절감 및 마케팅력 강화를 통해 부실사업을 건실기업으로 다시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를 정부의 손에 의지하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M&A를 추진한답시고 부채를 감축해달라,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해달라 등등 1차적인 사업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요구사항을 선결조건으로 내놓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M&A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하고 구조적인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는것이다.

<화학저널 2001/4/2>